

제 34 호

연중제 16 주일
(강림후 6)

1973. 7. 22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료]



월미호를 기다리면서

유 장 훈 신부

요즘 신문사의 화제는 운동 영국인 베일리 부부의 애기가 차지하고 있다. 망망대해 동태평양상에서 표류되어 구명 고무배를 타고 117일이란 시일을 노도와 굶주림과 질병과 싸우며, 삶의 절망적인 순간들을 용기와 강한 의지로 극복하다가 마침내는 우리 어선 월미호에 의해서 구출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人生은 苦海”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고통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말이겠다. 비록 태평양상에서 표류되어 당하는 고통이 아니더라도 육지위에서도 이와 흡사한 고통을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의 처지가 화려하고 편안한 요트위에 몸을 담고 인생항로를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꿈이 무너지고 겨우 한조각 고무배위에 자신을 싣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면 대부분 서슴치 않고 고무배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실로도 이를 입증할 수가 있다.

수많은 고통은 모양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엄습하고 있다. 주관적이기는 하나 나의 고통과 번민은 타인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리 만큼 크게 느껴진다. 또 고통이 심각하게 느껴질 때는 누구에게나 의지하여 당장에 이를 해결짓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인간고통이 더욱 격심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 베일리부인의 일기에 의하면 가장 견딜수 없는 고통은 “아무도 우리가 이처럼 표류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인군을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배들을 목격했을 때의 심적인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괴로움에 지쳐 있는 나에게 다만 한마디의 말로써도 나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된다.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으니가 말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표류된 나에게 관심을 없다. 아니 내가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에 그저 내 주위를 맴돌다가 지나가 버린다. 애당초 인간에게 내 구원을 바란것이 잘못이다. 그러나 절망은 금물이다. “내일은 우리를 구원해 줄 배가 나타날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못 사람들은 나를 의면할지라도 오직 한분 우리의 아버지인 나를 찾아오리라 믿는다. 이 순간에도 또 하나의 월미호는 내 시야 밖에서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요약) 유장훈 (전주 성심여중교종교장)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나는 자진하여 당신께 제사를 올립니다. 당신 이름 줄으심을 아체님 나는 찬마하리이다.

□**제1독서** (에레레아 23:1-6)

흩어진 양들을 모아 그들 위에 목자들 세우리라.

□**창계송**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것 없노라.

한 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 오래 주님중에서 살으리다. ◎

□**제2독서** (에페소 2:13-18, 성서P. 439)

원수를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신 그 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도 그들을 알아 보노니,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복음** (마르코 6:30-34, 성서 P. 89)

그들은 목자 잃은 양들과 같았다.

□**신자들의 기도** (평화를 구하는 기도)

1.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소서.
2.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선망이 있는 곳에 신앙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
3.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
4.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

+ 일치와 평화의 주여, 화해의 성년에 바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인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들어라, 내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되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23(월)	독서 (골로사이 3:12-17, 성서 P.460)	복음 (마 태 오 12:38-42, 성서 P.28)
24(화)	독서 (골로사이 3:18-25, 성서 P.461)	복음 (마 태 오 12:46-50, 성서 P.29)
25(수)	* 성 야고버 사도	
	독서 (고린토후서 4:7-15, 성서 P.409)	복음 (마 태 오 20:20-28, 성서 P.48)
26(목)	독서 (골로사이 4:2-6, 성서 P.462)	복음 (마 태 오 13:10-17, 성서 P.29)
27(금)	독서 (테살로니카전서 4:13-18, 성서 P.468)	복음 (마 태 오 13:18-23, 성서 P.30)
28(토)	독서 (테살로니카전서 5:1-11, 성서 P.469)	복음 (마 태 오 13:24-30, 성서 P.31)

□본당 코우너□

새 전등을 위한 정성들에 감사드립니다



누계 현금 수입 457,000원
자 갈 100트럭
탁 주 3섬
(7월18일까지 접수분)

천 동	무병씨 50,000	김용욱 10,000
	강상호 10,000	안득수 10,000
	고재상 5,000	엄익도 5,000
	김순녀 5,000	정금순 5,000
	이정조 3,000	박말향 2,000
	장영기 2,000	강해룡 2,000
	민신희 1,000	정현자 1,000
	최복금 1,000	김진식 1,000
동교동	김병오 10,000	김규승 5,000
	주금동 3,000	정진숙 2,000
	최성용 2,000	서문 1,000
	서선순 1,000	이동수 1,000
서교동	백종흠 5,000	전점순 4,000
	이정자 2,000	김창신 1,000
	윤봉덕 1,000	최봉희 1,000
	김수정 500	정순례 500
동완산동	유기남 10,000	유남순 10,000
	이복원 5,000	이영태 3,000
	이광진 2,000	송삼례 1,000
	강복남 1,000	박영례 1,000
	김성녀 500	정생모 500
서완산동	황희상 5,000	한정숙 3,000
	전팔름바 1,000	황희대 1,000
	소병덕 500	
풍남동	장준수 50,000	유희진 30,000
	유경옥 15,000	조지영 10,000
	오명순 3,000	이수만 2,000
	서정옥 2,000	최연조 2,000
	오정숙 2,000	이관희 1,000
	정갑택 1,000	윤원균 500
	김광웅 500	

남노송동	송영선 30,000	탁주 3섬
	송재진 10,000	전희생 5,000
	김옥례 3,000	황베로니가 2,000
	문복수 2,000	박결례 1,000
중앙동	전순화 5,000	라정순 5,000
	강안자 3,000	이병석 2,000
	김미희 2,000	

기타	성심학교 50,000
	장남수(스타사진관) 10,000
	정레지나(부산교우) 5,000
기타동	양운모 차갈 100트럭 (20만원 상당액)
	서재길 1,000
	김재완 1,000
	한종순 1,500
	이삼순 1,000
	김경애 1,000

노력봉사				
전 동 남	19	녀 50	노력봉사금	2,700
교동 1가 남	36	녀 145	"	1,200
교동 2가 남	15	녀 28	"	2,000
동완산동 남	27	녀 63	"	2,500
서완산동 남	7	녀 55	"	2,000
풍 남 동 남	6	녀 66	"	3,900
노 송 동 남		녀 31	"	1,800
중 앙 동 남	9	녀 14	"	
기 타 동 남		녀 16	"	

※ 기타 인부 남 80여명
계 남 199명 녀 468명 " 12,100

교형 자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전등 교회 사도회

전주전신전화국 앞
제과 @5011 찻집 @5013 *개업*

프 랑 스 제 과
* 임 금 님 찻 집 *

「프랑스제과」에도 대형 에어컨 설치!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원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왕자표연탄

전화 : @5287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
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양 지 쪽□



침 통과 명 석

체온과 맞먹는 열기를 뿜어내던 천지가 아가씨「밀리」의 옷자락에서 이는 바람 덕분에 바닷이 숨통이 터졌다. 어쩌나 더웠던지 온 천지가 오나 가나 숫제 <침통>이었다. 직장이라고 나가보아야 그렇고 집구석이라고 찾아 들어보아야 역시 별도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침통>이란 음식물 만드는데 쓰는 도구임에 틀림없는데, 요새 학생들은 통풍이 잘 안되는 교실을 일러서 침통이라고 말한다. 그럴 법한 이야기이다. 70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서로를 지지않고 37도의 열을 자랑하는데다가, 바람 한점없고 슬라브 지붕마저 태양열로 짓눌려대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어디 교실뿐이겠는가 마는 사실 어떤 때는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았기가, 앉았는 것 보다는 누어 있는 게 더 편하다고들 한다. 그런데도 엇그제 같은 날씨가면 아무리 열치락 뿜치락대도 눈두덩만 무거울지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털털거리는 선풍기 하나 없이 선풍기(?)만으로 한여름을 나는 서민네들이 여름철이면 공통으로 겪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다. 하기가 온종일 따뜻하게(?) 우려낸 코닥지만한 남의 집 셋방으로 기어들어 보아야 별 신통한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무어 시원할 꺼리가 없을까 하고 아무리 두리번 거려 보아야 별 뽀죽한 수가 없다. 팔죽같은 땀을 흘려 가며 보신탕에 소주 한잔을 기울여 보아도 계속 느껴지는 갈증이나 더위는 어쩔 수 없다. 음탕만한 울안에서 큰방 눈치 보아가며 찬물을 끼얹어 보아도 그 때뿐이고 버쩍 버쩍 솟는 땀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오히려 거머리 뜯겨가며 논두렁을 누비다가 뚫고추에 된장찌개 막걸리 한잔하고 느티나무 밑에 아무렇게나 쓰러져서 잠 한숨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어디 그뿐인가? 저녁먹고 개울에 나가 목물한 뉘, 모깃불 피워 놓고 명석에 누워 비 안오는 걱정하다가 보면 잠들어 버리는 맛이란 어디에 비길 수 없을 것이다.

에어콘이 신경통을 들고고 선풍기를 들어 놓고 자다가 죽는 일이 가끔 생기다 보니, 에어컨 뒤에서 나오는 훈건이나 선풍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이 연상되어 자연이 그리워 진다.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른 공해가 너무나 크다보니 이런 날씨에는 더욱 자연이 좋게 느껴진다.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갑)

요즘이 (1) 김병호



성 바 오 로 서 원

미 사 시 간 안내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주 일	오전 6, 10시 오후 7시 30분	6, 10시 8시	10시 4, 8시	10시 8시	10시 8시	5시반, 9, 10시 8시
평 일	오전 월, 주(6시) 금(10시-어머니)	금(10시-어머니)	월, 수, 금(10시)	월, 목(6시)	월, 수, 금(6시)	
평 일	오후 화~목(8시) 토(5시)	화~목(8시) 토(6시-아동)	화, 목, 토(8시)	8시	화, 수, 금, 토(8시)	화, 목, 토(8시)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②2212 ③7071)
김 병 구(빈첸시오)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화 ② 6 5 8 9
(미미사장 ③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옆)
김 만 주 (가타리나)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성년 기도문 제정(성 프란치스코 지은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 교구에서 선정된 기도문을 성년동안 매일 열심히 바칩시다. 천주교 전주 교구장
2. 사도회 제 4 지구 분과 월례회
금주에 각 분과 월례회를 가집시다. 제4지구 신부님 회의와 사도분과 회의가 7월 25일(수)에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25일 이전에 회의를 가져 사도분과회의와 신부님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분과 회의는 7월 25일 오후 8시반에 시작동에서 있습니다.
3. 빨랑카(Palanca, 일명 「영적선물」)를 보냅니다.
꾸르실로 전주 교구 사무국
교구내 모든 꾸르실리스타는 춘천(제5차-7.26-29, 제6차-8.2-5)과 대구(제10차-8.2-5)교구에서 있는 꾸르실로에 아래와같이 빨랑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무국에서 일괄해서 보내겠습니다
(내용) 미사 참례(2회), 영성체(2회), 성체조배(4회), 묵주의 기도(10단), 화살기도(4회), 회생(2회), 주모경(4회), 묵상(2회)
4. 전주교구 대학생 제5차 지역 대회 (7. 23~26 번산 마포 해수욕장)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신자 예비 신자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회비 1,500원과 쌀, 문의치 ②3498)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사도 회장 김종순

1. 주일 학교 하기 교리(7. 23-28)
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중·고등학생 캠프(7. 26-29, 고창동호 해수욕장)
① 접수-7.14-21(매일 오후 7-8시), 캠프안내회의실
② 자격-신자 및 예비신자 남녀 중·고생
3. 성년행사는 날씨 관계로 8월 하순부터
4. 교무금 납부에 주교좌 본당 교우의 긍지를 지킵시다
7월 18일 현재 납부 성적은 56.3%로 미납액이 1,257,300원이나 됩니다.
5. 신용 조합 월례회
보통 예탁금 이자를 배당하오니 통장가지고 오십시오.
6. 성심부녀회 연수회(7.25~26)
무주 구천동 연수회 참가 희망자는 23일까지 강릉무민에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오조성

1. 아동교리에 부모님들은 적극 협조합니다.

날자	9시	10시	11시
7.25(수)	예수님	예수부활	레코레이션과 합동교리
26(목)	성신	성신 사명	〃
27(금)	교회	교회의 사명	〃
28(토)	십계명	첫째 계명(사랑)	〃
29(일)	성사	7성사	〃
30(월)	중 합		
31(화)	경시대회 및 체육대회		
2. 어머니 성가 연습(매주 월요일 저녁 미사 후)
 지난 주 성미(2말 5회) 누계 169말 1회 5회
지난주일 봉헌금 10,54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첫 영성체 교리(매주 토요일 오후 4시)
2. 사도회 월례회(다음주일)
3. 주일 봉헌금 배가운동에 정성껏 협조합니다.
4.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5. 본당 신축기금과 성미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6. 기도합니다.
사도회 부회장 조해형 교장 도미(7. 24출발, 약1개월)
 지난주 성금(2말 2회 3회) 누계 2가마 2말 2회 3회
지난주일 봉헌금 11,496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어린이 교리(7. 23-28)에 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2. 7월 25일(수)은 아침미사 있음
3. 성년 기도문을 바칩시다. (금주부터)
4. 신용조합 미사회(7. 28(토) 저녁미사 후)
신용조합 월례회(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지난 주일 봉헌금 8,41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새전동 성당을 이룩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합니다.
① 사도회에서는 여러분의 회사금을 접수합니다.
② 회사금을 진입하실 분은 7월말까지 납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공사기간 중 주일미사는 현장에서 지내고 평일미사는 사제관에서 지냅니다.
2. 적극 협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협조하신 분 명단(2면참조)
3. 아이디어 모집
금번 공사로 성당우측(팔달로변쪽) 흙을 파낸 공지에 「미화잡업」 흙을 효율적(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실 분은 7월 30일까지 본당신부님 혹은 사도회장님에게 연락바랍니다.
<예> ① 「정원수」를 심는다.
② 「동물원을 만든다, 야생동물을 기른다」
 지난 주일 봉헌금 28,86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사도회 월례회(7월 27일(금) 오후 8시)
2. 부녀부 월례회(다음주 공식 미사후)
3. 피정비 미납금 납부 기일이 한달이 지났습니다.
4. 교무금을 7월중에 완납합니다.
5. 건진 기념 사진을 빨리 찾아갑시다.
6. 아동 교리서를 빨리 구입해줍시다.
 지난주일 봉헌금 5,175원, 감사합니다.